

인터넷 지상법석

# “자비심은 수행의 결정체”

수행이 여러분을 어떤 모습으로 변화시킬까요?

부처님은 수행을 거쳐 자신을 겸손하게 하여 친절을 배우고 이를 통해 타인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며 궁극적으로 대승불교의 가장 큰 진리인 '자비심'을 깨달았습니다.

수행을 하는 불자라면 이 자비심이 마음속에서 항상 큰 원을 그리며 타인을 향한 사랑으로 발전해 가야 합니다.

자비심을 얻기 위해서는 먼저 수행을 통해 고요된 정신을 이끌어 내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물론 일부 사람들은 부처님 가르침을 가리켜 이성적으로 명확한 지혜라고 말하곤 합니다. 그러나 나는 불교란 바로 자신의 '눈을 뜨게 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이라 할 수 있는 진실되고 순수한 마음 혹은 자각(自覺) 등의 여러 덕목 중에서 '자각'이야말로 불교에서 지극히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물론 공부하는 불자가 '자각'의 중요성을 말할 수도 있겠지만, 나는 다시금 '자각'에 덧붙여 강조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바로 열린 마음입니다. 열린 마음은 단지 이성적으로 명료한 마음이라기 보다는 따뜻한 마음입니다. 그리고 '송고한 사랑'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따라서 수행이란 바로 자신의 눈을 뜨게 해 송고한 사랑을 배우고 자비심을 얻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수행을 위해 어떤 자

칼루 린포체  
美 다르마센터 원장



이 수행이 바로 명상입니다. 명확히 보고 열린 마음을 통해 자각할 수 있는 실천적인 수행입니다. 지혜의 바다를 건너 무한히 열려 있는 자신의 마음과 이로 인해 열린 타인의 마음 그리고 사물의 본성을 유영하듯 헤엄치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완벽한 부처의 마음'이라고 일컫고 싶습니다. '완벽한 부처의 마음'이 바로 자비심입니다. 이제 '사랑' '자각' 등의 말은 어울리지 않습니다. 오로지 '자비'만이 결정체로 남아있습니다.

나는 이제까지 '자비'를 체득하는 과정과 더불어 자비심의 실체를 설명하고자 노력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지금 범문을 듣는 사부대중에게 꼭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수행을 시작할 때 날카로운 지성을 바탕으로 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그러나 수행은 이성적인 지성보다는 온 생을 통해 끊임없는 지속되는 노력이어야 합니다. 자신을 '불자(佛子)'라 서슴없이 말하는 사람은 분명 불교에 대

역  
· 1905년 티베트에서 태어났다. 14대 달라이라마의 스승으로 더욱 잘 알려져 있으며 16대 칼마파인 리페를 계를 가르치기도 했다.  
현재 세계 각지에 '다르마 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 칼루린포체는 최근까지 뉴욕을 비롯해 14개 '다르마 센터'를 개설했다.



반야심경은 언어로 표현할 수 있는 세계에 관해 설명한 글이 아니다. 관자 재보살이 얻은 반야지로 볼 때 보이는 세계를 설명한 글이다. 따라서 오관으로 보고 느끼는 것을 본질적으로 판단하는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글이 아니다.

관각속의 불교  
불교속의 과학 17  
김성구  
반야심경과 물리학

유심조의 입장에서 살펴보아야 할 말이다. 전체가 하나일 수밖에 없는 실험적인 증거가 실제로 있다. 사람이 보는 것은 결국 자기가 창조하여 보는 것이라는 현대물리학

의 해설을 유명한 물리학자 아인슈타인은 죽을때까지 받아들이지 않았다. 현대물리학의 해설에 치명타를 가할 수도 있는 예로 아인슈타인은 포돌스키(Podolsky)와 로젠(Rosen)과 함께 제시하였다. 이것을 EPR실험이라고 부르는데 자세한 설명은 나중에 하기로 하고 먼저 결과를 얘기하겠다.  
EPR이 제시한 실험은 여러가지로 까다로운 점이 있어 1982년에야 실제로 실험을 하였는데 아인슈타인이 틀렸다. 전체가 하나이며 사람은 자기가 보는 것을 창조해서 보는 것이다. 현대물리학의 해설의 옳은 것이다.  
전체가 하나이며 일체즉 유심조

불구부정

## 전체를 하나로 볼 수 있는 '반야'의 경지 현대 물리학도 '일체 즉 유심조' 해설

난다. 생명체는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먹이를 얻고 알맞은 환경에 있어야 하는데 자신의 생명을 유지하는데 필요하거나 알맞은 것은 좋아하고 깨끗하게 보며 생명을 위협하거나 건강상 좋지 않은 것은 싫어하고 더러운 것으로 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불구부정은 보통사람의 차원을 넘어선 반야의 차원에서 볼 때 그러하다는 뜻이다. 반야의 차원은 물리학뿐만 아니라 일체의 학문적 접근을 불허하는 신앙과 깨달음의 차원이지만 할 수 있는데까지는 학문적 접근을 해볼 필요가 있다.

원자(原子)의 차원에서 볼 때 나고죽고 썩는 모든 것이 단지 원자들의 배열만 바뀌는 것일 뿐 변한 것이 없기에 생물을 무생물을 통틀어 물질적 전체를 놓고 보면 '불생불멸 불구부정 부증불감'이라는 말이 이상하지 않게 들릴 수도 있지만 생명체 하나의 입장에서 볼 때는 불구부정이라는 말이 거부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  
경전이 말하는 바는 전체를 하나로 보라는 뜻이고 그것이 가능하다는 뜻이다. 생명체 하나 하나는 분리될 수 없는 전체를 보지 못하고 아상에 집착하여 꿈을 꾸고 있다는 뜻이다. 불구부정은 일체즉

## 눈을 뜨고 마음을 열면 일체사물 내 몸처럼 사랑

제가 필요할까요?

매진하는 것은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기차를 예로 들어볼까요. 기차는 화차를 선두로 각각의 객차들이 견고하게 연결돼 한 목적지를 향해 출발합니다. 이것을 언뜻 보면 우리가 견지해야 할 수행관과 비슷합니다. 그러나 한 객차 벗겨보면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자신을 비롯해 모든 사물을 꿰뚫고 이것들과 떨어져 있을 수 없다는 뜻이 포용해 나가는 것, 이것이 기차의 속성과 분명히 구분됩니다.

타인과 사물과 내적으로 교류하고 끈끈한 관계를 유지하는 우주적인 자신을 바라보는 수행이 바로 대승경전에서 일컫는 '인드라넷(Indranet)'입니다. 인드라넷은 타인을 비롯한 모든 사물을 마치 거울처럼 바라 볼 수 있는 정신적인 구조체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수행을 할 때, 이기주의 산물인 자아에 집중하고 단지 자신의 경험에만 집착하지 않고, 인드라넷처럼 타인을 비롯 모든 사물과 정신적인 교류를 유지해야만 합니다.  
이런 수행을 통해 얻어지는 자아는 무

## 조금씩 가르침에 접근 끊임없이 노력하면 '내면' 보게돼

엇입니까?  
분명 우리는 스스로 자아와 동일하게 보이는 모든 것에 놀라움을 금치 못할 것입니다.  
수행은 무한한 관계 무한한 깊이 속으로 우리를 빠져들게 하기 때문에 우리는 종국에 이르러 내면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면'은 무한히 깊은 곳에 신비스럽게 자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내면'을 보는 과정을 거쳐 타인을 비롯한 모든 사물들과 더욱 견고하게 상호관계를 유지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완벽한 실체'를 분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완벽한 실체는 조각이 나오면서도 형태를 가지고 있으며, 자신을 중심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인드라'의 의미는 여기에 있습니다. 만

다리의 둥근 원과 오묘한 선으로 구현된 다양한 문양은 결코 분리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만다라를 가리켜 '기도하는 바퀴'라고도 합니다.  
수행을 통해 보여지는 자신을 다시 바라봅시다. 그리고 자신을 중심으로 수없이 뻗어 있는 선, 상호관계라 부를 수 있는 주변 선을 따라 눈을 옮겨 봅시다. 타인을 비롯한 모든 사물이 선 위에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목상을 통해 끊임없이 자아를 성찰 할 때, 타인과 사물과의 밀접한 상호관계를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타인을 분리하고 사물과 일정한 거리를 두는 고립성·이기성으로부터 탈피해 갈 수 있습니다. 저는 이 과정이 평화를 이끄는 길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한 신심이 가득한 사람이 들림없습니다. 또한 이들은 기회 닿는 대로 부처님의 고명(高名)을 듣고, 부처님이 생존했던 황금시대의 추억을 즐겨 공부합니다. 그러나 이런 자세에도 불구하고 수행에 전념하지 않으며 '외구심'마저 갖고, 설사 수행을 하더라도 습관에 젖어 행한다면, 화통한 지성을 지닌 그 어떤 사람이 수행을 하더라도 부처님의 가르침을 몸소 느낄 수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긴 시간을 놓고 조금씩 조금씩 부처님의 가르침에 접근해야 합니다. 우리 내면이 지닌 우주적인 자아의 본성에는 우둔하면서, 발빠른 지성이 우리 보다 앞서가서는 안됩니다.  
우리가 세속에 몸담고 살고 있는 동안에도 불법(佛法)은 우리의 마음 속에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루 한 시간만이라도 지속적으로 수행을 한다면, 무심결에 지나친 불법, 즉 불성을 분명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세속 삶에서 느낄 수 있는 가장 큰 즐거움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진정 자신의 불성에 눈을 뜨길 간절히 바랍니다.

# 대원불교대학

## 학생모집

(2년제 야간 전문과정)

■ 모집학과 : 불교학과 출강과정 ○○명  
통신과정 ○○명  
연구과정 ○○명

■ 지원자격 : 진실한 불자가 되고자 하는 자  
연구과정은 교양대학 졸업자 및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생각되는 자

■ 강의시간 : 출강/통신 - 주 5일 오후 7시~ 8시 30까지  
연구과정 - 주 2일 오후 2시~4시까지

■ 원서교부 및 접수기간 : 1996년 8월 31일까지

불교 대중화를 선도하는  
대원불교대학이  
가을학기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 20년 역사의 불교계 최초 전문교육기관
- 교계 최고의 강사진

주소 : 140-190 서울시 용산구 후암동 358-17  
전화 : 776-7156, 773-9171, 754-1613/ 팩스 : 756-7258

■ 교과목

1학년	2학기	불교입문	취업사상	밀교사상	선학입문	정토사상
2학년	2학기	의식수수	불교상담학	불교복지론	종교사및 종교학	원전강독 I
2학년	2학기	구사론, 법화경, 정토3부경, 금강경, 육조단경을 매학기 2과목씩 강의				

◇ 과목은 사정에 따라 약간씩 변경될 수 있음  
■ 특 전 : 졸업후 ㄱ. 포교당 개설시 지원 가능  
          ㄴ. 소정의 법사교사를 거쳐 법사호 수여  
          ㄷ. 포교당 개설시 법인의 보호를 받음  
\* 기타 상세한 사항은 본교로 문의바람